

단보

동아시아 비판·대안적 지리학의 발전 과정을 돌아보며*

최병두**

1. 계기(契機)로서 세계비판지리학 창립대회

나는 1996년 8월부터 1997년 7월 말까지 연구년 동안 세계적으로 저명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교수가 연구하고 있었던 미국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지리학과에 방문학자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전에 하비 교수의 저서 『사회정의와 도시(Social Justice and the City)』와 『자본의 한계(The Limits to Capital)』를 한글로 번역·출판했다. 나는 하비 교수가 1995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만나 그의 대학교에서 연구년 동안 함께 연구하길 원한다고 말했고, 그는 기꺼이 나의 요청을 수락했다. 당시 존스홉킨스대학교 지리학과는 환경공학과와 통합되어 공대에 속해 있었고, 순수하게 지리학을 전공하는 교수는 3명에 불과했으며, 학부 과정은 없고

* 이 글은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연구플라자(urban research plaza) 미즈우시 도시오(水内俊雄, Toshio Mizuuchi)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자신과 관련된 동아시아지역 대안 지리학대회의 창립배경에 관한 글을 요청함에 따라, 세계비판지리학대회 및 동아시아지역 대안지리학대회의 초기 발달과정에 관한 개인적 경험과 소회를 기술한 것이다. 이 글의 초안은 일어로 번역되어 도시연구플라자에서 출간하는 회보 《도시와 사회》에 게재될 것이며, 영어본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글은 한국 및 동아시아 비판지리학의 발달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국내 연구자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앞부분에 서술된 미즈우시 교수의 정년 퇴임 글을 생략하고 약간 수정하여 여기에 게재하게 되었다.

** 대구대학교 명예교수(bdchoi@daegu.ac.kr).

대학원 과정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는 하비 교수를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 학문적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의 강의 ‘자본론 읽기(Reading Capital)’와 다른 세미나나 토론회 등에 참석할 수 있었다. 특히 나는 하비 교수의 제자로 박사과정에서 연구하고 있던 리사 김 데이비스(Lisa Kim Davis)를 만났다. 그녀는 어머니가 한국인으로, 내가 학과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나의 가족과도 친하게 지냈다. 그녀는 1996년 말경에 나에게 국제비판지리학 창립 학술대회(Inaugur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tical geography, 이하 IICCG)가 1997년 8월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닐 스미스(Neil Smith) 교수의 이메일을 나에게 전달하면서,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판적 지리학자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참석을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ICCG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Simon Fraser University)와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British Columbia University)의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조직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담당했지만, 하비 교수의 제자이자 『불균등발전』의 저자로 잘 알려진 닐 스미스 교수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나는 우선 한국에 있는 나의 동료 교수들과 후배들(주로 대학원 박사과정생들)에게 IICCG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이 학술대회에 발표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더라도 많이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당시 한국에는 지리학, 도시사회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도시공학 등의 전공분야들에서 공부를 하던 젊은 연구자들로 주로 구성된 ‘한국공간환경학회(KASER: Korean Association of Space & Environment Research)’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이 학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10여 명이 참석하겠다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는 또한 이 학회와 관련되거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해외(미국, 영국, 일본 등) 유학 중 한국 학생들에게도 이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참여를 권유하면서 또한 해당 국가에서 참여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가진 비판적 지리학자들을 소개해 주면 내가 접촉할 것이니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IICCG와 관련된 일본 현지의 연락은 마틴 브렌넨(Martin Brennan)교수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를 잘 알지 못 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마침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후배인 김두철(현재 오카야마대학교 교수)이 일본 도호쿠대학교(東北大学) 지리학연구소에서 박사과정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이러한 사정들을 알리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비판적 지리학자들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나에게 당시 시마네대학교(島根大学)의 쓰쓰미 겐지(堤研二) 교수와 히토쓰바시대학교(一橋大学)의 미즈오카 후지오(水岡不二雄) 교수를 추천했고, 이들의 관심 분야와 구체적인 연구 주제 등을 알려주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1997년 2월 19일 쓰쓰미 교수에게 처음 이메일을 보내, 비판지리학에 대한 관심과 IICCG 참석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 특히 나는 쓰쓰미 교수에게 내가 구성하려는 특별 세션, ‘불균등한 지구화 과정: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과 역할(Uneven processes of globalization: Experience and role of East Asian Countries)’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일본에서 인구가 쇠퇴하는 과소지역 연구에 전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요청에 기꺼이 응해주어서 지금도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미즈오카 교수로부터는 바로 답장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주로 쓰쓰미 교수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IICCG에 관한 진행 상황과 내가 구성하는 세션에 관해 논의를 했다. 나는 이 세션에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비판적 지리학자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등록 마감일을 늦추어 가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알아보았으나 더 이상 참여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내가 조직한 세션은 쓰쓰미 교수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의 지리학 및 관련 전공분야의 비판적 연구자들 10명 정도가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3개의 세부 세션(sub-session)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4월 나는 미국의 텍사스 포트워스(Fort Worth)에서 개최되었던 미국 지리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연례학술대회에 참석하여 IICCG를 조직하고 있던 핵심 구성원들인 닐 스미스 교수와 니콜라스 블롬리

(Nick Blomley), 조 페인터(Joe Painter) 교수 등을 만났다. 이들과는 처음 만나는 것이지만,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IICCG 준비 과정에 관해 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에 관해 서로 이야기했다. 나는 IICCG에 한국에서 1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지만 그 외 국가들에서 참가할 학자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파악했던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지리학 및 관련 전공 분야들에서 비판적 관점을 가진 연구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토론했다. 특히 나는 동아시아의 학자들이 서구 학계에서 진행되는 비판적 지리학의 발달과정과 그 배경에 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영미권 지리학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언어 소통문제 등이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과의 대화 외에도, 나는 AAG 연례학술대회에 참여한 동아시아 출신 지리학자들에게도 IICCG에 대해 잠깐씩 얘기를 나누었지만, 더 이상 참가자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1997년 8월 초순 나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의 연구년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IICCG가 열리는 캐나다 밴쿠버로 가족과 함께 갔다. 나는 한국에서 온 참가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며칠 전에 도착하여 주변 지역을 이미 답사했고, 대부분은 국제학술대회 참석이 처음이라 다소 들떠 있었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 박사과정 연구를 하고 있던 유학파들도 합류했다.¹⁾ 나는 포트워스의 AAG 학술대회에서 만났던 지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밴쿠버에서 새로 만난 여러 지리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판지리학 연구 동향을 소개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조직했던 세션의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한편, 다른 세션에 발표할 내 논문도 검토해야 했다. 내가 조직했던 세션이 둘째 날 하루 종일 진행되었지만, 동아시아 지역

1) 한국에서 온 참가자는 김덕현(경상대학교 교수),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강현수(중부대학교), 그리고 당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하고 있던 변창흠, 이상현, 서종균, 이영아, 손정원, 신혜란, 최지훈(부부), 김은란 등이었고, 미국에서 박배균, 이용숙, 영국에서 정성훈 등이 참석했다(무순, 현재 소속 생략).

에 관한 연구, 특히 한국적 상황에 관한 연구에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토론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²⁾

나는 발표장에서 일본에서 도착한 쓰쓰미 교수와 미즈오카 교수도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나, 반갑게 인사를 했다. 쓰쓰미 교수는 내가 조직한 3번째 서브-세션에서 발표와 더불어 사회를 맡아주었다. 미즈오카 교수와는 일본의 비판지리학의 발전과정과 현 국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더 많은 지리학자들이나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낮 동안 공식적인 논문 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저녁 식사와 더불어 그 후 술을 마시고 다소 소란스럽게 떠들며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기 마련인데, 나는 가족과 함께 밴쿠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공식적 교류모임에는 제대로 참가하질 못한 것이 아쉬웠다.

밴쿠버에서 열린 IICCG에는 세계의 30여 개국에서 지리학자들, 관련 활동가들 그리고 여타 연구자들로 약 300명이 모였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이 학술대회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하면서 진지한 토론과 동지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³⁾ 당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997~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처럼 세계도처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는 와중에 IICCG가 개최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많은 국가적 정치 씨앗들을 키워서, 오늘날 우리 세계들을 재구성하는 지구적 및 국지적 사건들에 대한 비판적·지리학적 대응에 종사하는 지리학자들의 국제적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라고 닐 스미스는 IICCG 개최에 관한 보고서에서 서술했

2) 나는 스윈저도우(Swyngedouw) 교수가 사회를 보았던 한 세션에 참석하여 ‘맑스의 생태학과 환경정의(Ecology and environmental justice in Marx)’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3) 쓰쓰미 교수는 IICCG에 참석한 후 이에 관한 보고서를 공간과 사회 연구그룹 뉴스레터에 게재했다(堤研二, 1997).

다(Desbiens and Smith, 1999). 그뿐 아니라 IICCG는 동아시아지역 대안지리학 대회가 창립·발전하고 이 지역의 비판적 지리학자들 간 교류가 시작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2. 동아시아지역 대안지리학 대회의 창립

IICCG의 마지막 폐회 직전에 있었던 패널토론 세션에서 16명의 ICG 운영 위원들(members of steering committee)이 선정되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미즈오카 교수와 내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2차 국제비판지리학 대회의 개최 후보지로 한국이 제안되었는데, 나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영겁 결에 겁도 없이 수락했다. 한국이 제2차 학술대회의 개최 후보지로 제안된 공식적 이유는 2000년 8월 제29차 세계지리학대회(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그 직전에 제2차 ICCG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비판적 지리학자들이 한국에서 IGU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주류 지리학자들과의 암묵적 대립 분위기를 무릅쓰고 제2차 ICCG를 개최할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 아무런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다.⁴⁾

닐 스미스는 “일본, 북유럽 국가들, 한국, 그리고 최근 영국 등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조직화된 비판지리학의 오랜 전통이 있다”라고 서술했지만(Desbiens and Smith, 1999), 최소한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이러한 진술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었다.⁵⁾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한국에는 비판지리학

4) 제29차 서울세계지리학대회에는 한국의 지리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동원되었을 뿐 아니라, 조직준비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았고, 세계 각국에서 약 3000여 명의 지리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축사를 했다.

5) Mizuoka et al.(2005)에 의하면, 일본의 비판지리학의 기원은 대체로 1920년대로 소급된다. 한국의 경우 일제 식민지하에서 공산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이 있었지만, 해방과 분단으로 남

적 관점을 견지하는 ‘한국공간환경학회(KASER)’라는 조직이 있었고 정기적으로 학술대회와 부정기적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학술지, 《공간과 사회》도 발간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학회 구성원들 가운데 교수들은 5~6명에 불과했고, 거의 대부분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었다. 이 학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나는 개인적으로 주류 지리학자들로부터 상당히 배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지방에 소재하는 대구대학교의 교수였기 때문에 지리학이나 관련 전공 분야들에서 많은 연구자들을 참가하도록 독려하거나 학술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질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IICCG 마지막 날 닐 스미스 교수와 미즈오카 교수 등에게 한국에서 제2차 IICCG를 개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즈오카 교수에게는 일본의 비판지리학자들과 한국의 비판지리학자들이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가지면서 제2차 IICCG를 준비하는 데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밴쿠버 학술대회를 끝내고 각자 본국으로 돌아간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미즈오카 교수는 한국의 비판지리학자 그룹과 일본지리학회 내 ‘사회와 공간’ 위원회(Society-and-Space Commission)가 함께 구성하는 미니 컨퍼런스를 제안했고, 나는 이에 기꺼이 동의했다. 그는 1997년 9월 13일 보내준 이메일에서 이렇게 적었다.

당신이 구성한 IICCG[의 특별 세션]에 초대해 주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는 정말 아주 훌륭한 기회로, 나는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와-공간에 관한 ‘최신 경향(state-of-art)’을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서로 여러 공동의 연구 관심사를 공유하는 세계의 많은 지리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

한에서 지리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분야에서 맑스주의는 금기시되었고, 1980년대 중반까지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읽거나 소지해서도 안 되는 금서였다. 심지어 내가 번역했던 하비의 저서 『사회정의와 도시』는 인쇄·출판되었지만, 5년간 시장 판매가 금지되었다.

습니다. 나는 이러한 전통이 앞으로 지속되기를 강력히 바라며, 이를 위해 당신과 내가 구성원이 된 운영위원회의 힘찬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밴쿠버에서 합의한 이후에, 나는 효고현 히메지(兵庫県 姫路)에서 있을 공동 ‘미니 컨퍼런스’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미니 컨퍼런스의 구체적 내용은 ① 장소: 히메지 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People’s Lodge(国民宿舎) ‘Shingu So’; ② 시간: 1997년 11월 14일 오후 2시~15일 오전 11시; ③ 그 이후 일정: 히메지 성 방문 또는 일본 인문지리학회 학술대회(11월 15~16일) 참석; ④ 비용: 한국 참여자들의 숙식비는 일본 측에서 부담함 등이었고, 나는 이러한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미즈오카 교수는 일본에서 5~6명, 한국에서 5~6명, 모두 10여 명이 모여 공식적인 발표와 토론을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했으며, 특히 한국의 참여자들은 한국의 비판지리학 발달과정과 최근 상황에 대해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상호소통을 통해 미니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일본 측에서는 쓰쓰미 교수, 다카기(高木) 교수, 그리고 미즈오카 교수 등 5~6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미즈우시 교수가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참여한 지리학자는 IICCG에도 참여했던 김덕현(金德鉉) 교수와 나, 2명이었다. 나는 이 모임에서 「한국의 비판적·대안적 지리학의 발달에 관한 회고와 전망(Retrospect and prospect the development of critical-alternative geography in Korea)」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⁶⁾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판·대안적 지리학자들이 모이는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였고, 제1회 학술대회의 개최 장소로 한국의 대구가 제

6) 이 글은 미즈오카 교수가 일어로 번역하여 《공간과 사회》 연구 그룹의 뉴스레터에 게재되었다(崔炳斗, 1998). 이 글은 수정 보완하여 제2차 세계비판지리학대회에서 발표되었다(Choi, 2000. 또한 한글로 최병두, 2000 참조).

시되었다. 우리는 미니 컨퍼런스를 끝낸 후 오사카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던 일본 인문지리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어깨가 더 무거워진 기분을 느꼈다. 2000년 제2차 ICCG의 조직에 앞서 1999년 제1차 동아시아지역 대안지리학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나름대로 조직 역량을 키우면서 홍보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나의 개인적 상황으로 보면 두 개의 학술대회를 연이어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7년 후반에서 1998년에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이른바 IMF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은 심각한 경제침체와 사회적 혼란을 맞고 있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국가는 재정 지출을 억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즈오카 교수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그는 일본과 한국 외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비판적 지리학자들을 추천해 주었다. 예로, 애초에 학술대회의 명칭은 ICCG의 지역 모임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비판지리학대회’로 제안되었지만, 미즈오카 교수의 수정 의견으로 ‘비판적·대안적’으로 바뀌었고 결국 ‘비판적’이라는 용어도 빠지게 되어, ‘동아시아지역 대안지리학 학술대회(East Asian Regional Conference in Alternative Geography. 이하 EARCAG)’로 정하게 되었다. 개최 일정은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진 후 동아시아 국가의 대학이 대부분 시행하는 겨울방학 기간인 1999년 1월 24~26일로 하기도 했다.

그리고 학술대회 전체 주제로 ‘지구화 과정에서 전환 중인 동/동남아시아 경제: 대안지리학적 관점(East and Southeast Asian Economy in Transition under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from the Alternative Geographical Perspective)’ 등이 제안되었지만,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기로 하여 ‘21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사회·공간적 논제들(Socio-Spatial Issues for East Asian Countries in the 21C)’로 정했다. 참석자들의 범위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잠재적 참석 대상자 명단에는 중국, 홍콩, 타이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비판지리학들도 포함되어 있었다.⁷⁾ 이러한 내용으로

한국과 일본 국내뿐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ICCG 회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보냈다.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었던 닐 스미스 교수도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기조강연을 하겠다고 흔쾌히 수용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동아시아지역 대안지리학 대회가 일정대로 개최되었다. 장소는 첫날 경주에 위치한 교육문화회관 호텔, 둘째 날은 대구 교외에 위치한 대구대학교 캠퍼스였는데, 이렇게 장소가 나뉜 것은 대구대학교로부터 약간의 재정을 받기 위해서 학내에서 개최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닐 스미스의 기조 강연 주제는 ‘세계경제위기와 국제비판지리학의 필요성(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critical geography)’이었고, 일반 세션 6개와 특별 세션 1개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주제는 동아시아 지리학의 연구 방법과 관점, 동아시아 지역 문제의 재고찰, 도시 계획과 공간 형태의 의미 변화, 도시 및 지역정책과 발전 이데올로기, 지구적 맥락에서 국지적 도시 발전(대구 사례), 그리고 국가주의와 지역주의 및 장소의 정치 등이었다. 특별 세션은 미즈오카 교수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일본의 비판지리학의 상황과 학습 교재의 준비에 관한 것이었다.

제1차 동아시아지역 대안지리학 대회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19편의 논문이나 보고서가 발표·토론되었는데, 이 가운데 해외에서 참석한 발표자는 닐 스미스 교수 외에 일본 5명(Kenji Tsutsumi, Tatsushi Fujita, Toshio Mizuuchi, Fujio Mizuoka, Naoki Oshiro), 홍콩 2명[Wing-Shing Tang(鄧永成), George C.S. Lin(林初昇)], 태국 1명(Chatchai Pongprayoon), 그리고 당시 한국에

-
- 7) 그 이후 이와 관련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홍콩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EARCAG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헨리 영(Yeung W. C. Henry) 교수가 참석했는데, 그는 참여자와 관심 연구 지역의 범위를 ‘동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인도 등을 포함하여 남아시아 또는 아시아 전체로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나는 이 제안에 대해 상당히 단호히 반대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장할 경우 학술대회 참여자와 관심지역의 범위는 수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되겠지만, 동시에 관심사의 공통성과 참여자들 간 친밀성은 줄어든 것이며, 또한 영어 사용을 통한 의사소통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머물면서 연구하고 있었던 네덜란드 출신 로버트 하싱크(Robert Hassink) 등이었다. 한국인 발표자는 나를 포함하여 9명이었는데, 사실 이 가운데 학부에서 지리학을 공부하거나 지리학과에 속하는 연구자는 2명뿐이었고, 다른 한국인 참석자들은 경제학과, 행정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공학과 등에 속한 교수들이었다. 그 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학술대회에 참석한 교수나 연구자들이 10여 명 더 있었고, 대구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된 날에는 지리교육과 학생들이 많이 참관을 했다. 그 외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지리학과와 여러 교수들(Lily Kong, Kristopher Olds, Brenda Yeoh, Yeung W.C. Henry 교수 등)에게도 이메일로 참석을 권유했지만, 모두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참석은 하지 않았다.

제1차 동아시아지역 대안지리학 학술대회는 경주와 대구에서 각각 하루씩 개최되었고, 답사는 생략되었다. 이렇게 해서 걱정했던 학술대회는 무난히 끝났다. 참석자 30여 명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모두 매우 진지하게 자신의 논문을 발표했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으며, 하루 일정이 끝난 후에도 개인적인 교류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술대회의 자료집(proceedings)을 살펴보면 이 학술대회의 조직화와 발전 전망에 관한 별도의 공식 세션은 없었고, 아직 운영위원들은 선임되지 않았지만, 학술대회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다음 학술대회를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참석자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나는 일본에서 여러 지리학자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며, 이들이 경주에서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함께 했던 점심 식사에서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려가며 술 한 잔을 곁들여 해물 매운탕을 먹으면서 떠들었던 시간이 아직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일본의 참석자들 대부분은 김해공항을 이용했지만, 미즈오카 교수는 페리를 타고 부산항으로 와서 다시 같은 해상 경로로 일본으로 돌아갔다. 홍콩에서 참석했던 당(Tang) 교수와 린(Lin) 교수는 내가 부산국제공항에 마중을 가서 처음 만나 나의 차로 경주에 온 것이 기억난다. 일본에서 참석한 여러 교수들과 홍콩에서 참석해 준 당웡싱 교수에게 마음 속 깊게 감사하며, 태국에서 참석했지만 그 이후 소통이 없었

던 풍프레이윤(Pongprayoon) 교수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3. 제2차 세계비판지리학대회 개최

제1차 동아시아지역 대안지리학 대회 이후, 나는 바로 제2차 세계비판지리학대회 개최 준비를 했다. 이를 위해 나는 1999년 4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던 ICCG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Universidad Autonome Metropolitana)의 라미레즈(Blanca Ramirez) 등 여러 교수들과 닐 스미스 교수, 미즈오카 교수 등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ICG 취지문(Statement of Purpose)」 초안이 논의되었다. 이 대학교에서 미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실제 개최되지는 않았다. 운영위원회에 한번 참석하기 위하여 왕복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이는 나에게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웠다. 다른 운영위원회가 호놀룰루(Honolulu)와 베니스(Venice)에서 개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여기에 참석하질 못했다. 그 해 겨울(1999년 12월 18일) 미즈오카 교수는 자신의 대학교에서 ‘1997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와 21세기 전망(The Asia-Pacific Economy in 1997 and into the 21st Century)’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나를 초청했고, 나는 「동아시아 위기와 사회환경적 충격(The East Asian Crisis and its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나는 대구에서 개최될 제2차 ICCG의 준비 상황에 관하여 미즈오카 교수와 함께 논의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2차 ICCG를 준비하기란 나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지리학계 내 비판지리학에 대한 인식이나 나의 개인적 위상에 의한 한계도 그러했지만, 나는 실천적인 사회·정치적 운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2000년 당시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었고, 또한 대구 지역에서 시민단체 및 이와 관련된 부설 연구소 2곳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등으로 부적합한 후보들에 대해 낙천·낙선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 시민운동의 주체로 ‘2000년 총선연대’가 결성되어 있었다. 나는 이 연대체의 지역조직인 ‘대구경북 총선연대’의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거의 매일 활동가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거리로 나서서 시민들에게 홍보전을 해야 했다.

제2차 ICCG 조직을 위한 별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일들은 나의 개인적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미즈오카 교수가 이메일 리스트(icgg-ml@econgeog.misc.hit-u.ac.jp)와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별도의 인터넷상의 작업을 하지 않았고, 또한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원들도 국내 참가자들을 독려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수백 건에 달하는 이메일 문의에 응답하고, 이들의 발표 주제와 요약문을 받아서 정리했으며, 이들을 다시 분류하여 수십 개의 세션들을 구성해야 했고, 접수된 요약문들을 재편집하여 별도의 자료집도 만들었다. 학술대회 조직을 위한 재정은 참가자들이 각각 부담하는 등록비와 함께, 공식적으로 대구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일부는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제학술대회 유치를 지원하는 소액의 후원으로 충당했다.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숙소였다. 대구대학교는 대구 교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근에는 10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마땅한 숙소가 없었고 불가피하게 여름방학이라 비어 있는 대구대학교 학생 기숙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별 탈 없이 제2차 ICCG가 2000년 8월 9일에서 13일 사이 대구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주제는 ‘21세기 대안지리학을 위하여 (For Alternative 21st Century Geographies)’였다. 20여개 국가들에서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개회 세션에서 나는 비판지리학의 목적과 관련하여 ‘유토피아 공간의 변증법(Dialectics of utopian space)’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또한 멕시코에서 참석한 라미레즈 교수는 ‘세계비판지리학 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정치(politics of constructing an

International Critical Geography Group)’라는 제목으로 기초강연을 했다. 학회의 마지막 날, 끝 세션에는 데이비드 하비 교수가 ‘지리적 불균등발전과 보편적 권리(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and universal rights)’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30여 개의 세션들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주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경제위기에서부터 도시계획과 국가의 역할, 환경위기와 정치생태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고, 비판지리학과 관련된 주제의 영화 상영과 시 낭독회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주제들 가운데 돈 미첼(Don Mitchell) 교수는 ‘미국의 인민지리학 프로젝트(People’s geography project of the United States)’에 관해 발표했는데, 이는(비판적) 지리학을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비판지리학에서 ‘비판적(그리고 ‘대안적’, ‘급진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용어가 국가별로 상이한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도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⁸⁾ 또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변화들, 특히 1997~1999년 IMF 경제위기와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친 영향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논문 발표대회가 끝난 후 야외답사는 애초에 여러 코스가 제시되었지만, 결국 하나로 통합되어 대구 시내에 위치한 미군기지 주변과 대구 외곽에 위치한 지방공단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었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되었다. 답사에 동

8) ‘비판적’ 지리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규정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규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초점/구심점을 잃게 되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ICCG 창립 취지문에는 4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즉 “우리가 비판적인 이유는 (1) 우리는 만연한 자본주의적 착취 체계를 제거하기 위한 사회변화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에, (2) 우리는 사회과학이 점점 더 기업화되는 대학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많은 학술적 연구에서 자기-부여적 고립을 거부하기 때문에, (3) 우리는 차이를 고양하며, 그러나 이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적 전망을 제한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4) 우리는 인간 권리를 무시하는 기존 체계에 반대하여, 학계 밖에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기존 사회운동들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제2차 세계비판지리학대회



행했던 인도의 바너지-구하(Swapna Banerjee-Guha) 교수는 어떻게 대도시 한 가운데 이런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는가에 대해 매우 의아해했다. 답사자들은 일제의 식민지 경험과 그 이후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한국 대도시들의 공간구조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 근교 지방공단 방문에서는 다국적기업의 분공장과 그 하청공장들의 노동 현장을 돌아보고 당시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던 노동자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한국의 지방에 위치한 대구에서 개최된 제2차 ICCG에 이렇게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세계 도처에 산재한 비판지리학자들의 열정과 적극적 참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대구의 여름 날씨는 섭씨 35도를 오르내릴 정도로 무더웠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의 해외 참석자들은 대구대학교 학생 기숙사에 머물렀는데, 이곳에는 개인 샤워시설이 없어 공동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매우 끔찍한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대해 나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세션들에 열심히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그리고 매일 밤 학교 앞에 위치해 있

는 술집에서 참석자들의 술자리가 마련되었는데, 모두 즐겁게 떠들고 담소를 즐겼다. 닐 스미스 교수는 북잉글랜드 민요를 편곡한 <사회주의 A.B.C(The Socialist ABC)>라는 노래로 좌중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또한 제2차 ICCG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대만에서 상당수의 지리학자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나는 일본과 타이완에서 많은 지리학 교수와 대학원생들 그리고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특히 제1차 EARCAG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제2차 ICCG에 여러 대학원생들과 함께 참석한 샤주지우(夏鑄九) 교수와 쉬진위(徐進鈺) 교수 등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들은 홍콩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EARCAG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이후 EARCAG의 한 축을 이루면서, 이 학술대회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데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제2차 ICCG에 참석한 해외 지리학자들이 뒤이어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IGC 학술대회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유로 제2차 ICCG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분에 불과했던 것처럼 보인다. 대구에서 제1차 EARCAG와 제2차 ICCG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각 학술대회가 현재까지 발전적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세계에서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와 이의 산물이며 또한 이를 조건 짓는 공간적 편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4. 그 이후 개인적 소회(所懷)

제2차 ICCG가 나름대로 원만하게 개최된 후 1년쯤 지난 2001년 7월, 나는 제3차 ICCG 개최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영국 오픈대학교(Open University)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다. 이 모임도 다른 연계된 학

술대회 없이 운영위원회만 열렸기 때문에, 참석하는 데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제3차 ICCG는 헝가리의 베케슈처버(Békéscsaba)에서 개최되었는데, 나는 참석을 위해 발제문 작성과 항공권 예약 등 준비를 했지만, 어머니의 병환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다. 그 이후 ICCG는 제4차 멕시코 멕시코시티(Mexico city, 2005), 제5차 인도 뭄바이(Mumbai, 2007), 제6차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2011), 제7차 팔레스타인 라말라(Ramallah, 2015), 제8차 그리스 아테네(Athens, 2019.4.19~23)로 이어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나는 제3차 학술대회 이후부터는 참여하지 않았다. 개인적 사정도 있었지만 시간적·재정적 문제와 더불어 비영어권 참석자들의 소통 한계 등을 이유로 ICCG에는 더 이상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신 EARCAG에는 가능한 한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학술대회의 지속적 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ARCAG는 제1차 모임이 대구에서 개최된 이후, 2차 홍콩(2001년 12월), 3차 도쿄/오사카(2003년 8월 5~9일), 4차 타이페이(2006년 6월 24~30일), 5차 서울(2008년, 12월. 13~15일), 6차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2012년 2월 13~16일), 7차 오사카(2014년 7월 22~26일), 8차 홍콩(2016년 12월 6~8일), 9차 대구(2018년 12월 10~12일)로 이어져 개최되었다. 10차 학술대회는 2020년 타이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COVID-19 Pandemic)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나는 이들 가운데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던 제7차 학술대회에는 부모님의 노환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 했지만 그 외 학술대회는 모두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하거나 일반 세션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사회자 역할을 맡기도 했다. 각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학술대회를 조직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준 지역조직위원회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EARCAG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개최되면서 발전하게 된 것은 순전히 이들의 희생적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직에서 파생되거나 연관된 여러 활동을 통해 그 외연을 확장시키면서 실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대표적인 사례

<그림 2> 제8차 동아시아지역대안지리학대회



<그림 3> 제9차 동아시아지역대안지리학대회



로 미즈우시 교수가 있는 오사카시립대학교 지리학과에서는 EARCAG와 더불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 2019년 11월 26~28일에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지정학적 경제학(Geo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n Developmentalism)’이라는 주제로 제4차 워크숍으로 개최했다. 또한 미즈우시 교수가 부소장을 맡고 있는 오사카시립대학교의 도시연구플라자의 제안으로 동아시아 각국에서 비판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 (공공 및 민간) 연구소들 및 활동가 단체들과 연대하여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워크숍(East Asia Inclusive CTYNet Workshop)을 2011년부터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의 여러 도시 현장에서 개최하고 있다.⁹⁾ 홍콩침회대학(香港浸會大學)의 당윙싱 교수도 EARCAG와 관련되거나 그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여러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EARCAG가 1999년 조직된 이후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이제 EARCAG는 상당히 정착된 것처럼 보이며, 동아시아 민중들과 사회공간적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이었고 자국에서 EARCAG가 개최될 때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9) 또 다른 기억으로, 나는 개인적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008년 2월 동료 교수, 박사후과정 연구자, 대학원 과정 학생들과 함께 오사카 지역 답사를 갔다. 연구과제는 초국적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적응 과정과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었는데, 미즈우시 교수와 그의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리 일행은 오사카 시청을 방문하여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정책들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또한 외국인 이주자 지원 시민단체들을 방문하여 활동가들과 면담하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미즈우시 교수와 그의 대학원생들에게 매우 감사한다. 나의 연구팀은 같은 해 3월 히로시마도 같은 목적으로 방문하여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등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여러 편의 논문 발표와 더불어 『다문화 공생: 일본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10) 이러한 점에서 당윙싱 교수는 8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던 제8차 홍콩 학술대회의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적고 있다. “1999년 1월 남한의 경주와 대구에서 창립된 이래, EARCAG는 대체로 매 2년마다 동아시아 인민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이슈들을 다루는 포럼이 되었다. 우리는 상호연계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함으로써, EARCAG는 항상 최근의 발전에 관한 견해들을 교류하면서 논쟁들에 참여하기 위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학자들을 환대하고자 한다.”

않았던 타이완의 샤주지우 교수, 일본의 미즈오카 후지오 교수, 홍콩의 당영성 교수, 그리고 나는 이미 정년퇴임을 했고, 이번 3월에는 미즈우시 도시오 교수가 정년퇴임을 맞게 되었다. 앞으로 EARCAG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영위원회가 좀 더 젊고 활기차며 유능한 비판적 지리학자들로 충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2~3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거의 모든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지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비판지리학자들의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가 간 문화적, 특히 학술적 교류가 감퇴할 뿐 아니라 이러한 교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생긴다면, 우리는 국가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은 고인이 된 닐 스미스 교수와 함께했던 어떤 에피소드를 소개하려 한다. 1999년 4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ICCG 운영위원회에 참석했을 때이다. 나는 닐 스미스 그리고 다른 운영위원들과 도심 변화가의 한 노천카페에 앉아서 담소를 즐기고 있었다. 닐 스미스는 지나가는 멕시코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피부가 더 희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멕시코인들은 선조 원주민들로부터 백인과의 혼혈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지역에 따라 혼혈의 정도가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혼혈을 통해 서로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통합된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각 민족이 자신의 고유한 피부색을 가지고 상이한 민족성과 생활양식을 가지는 것이 좋은가? 닐 스미스 교수는 별로 망설이지 않고 전자의 방안을 선택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간의 변증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식민지 민족주의의 역사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나로서는 의외의 답변이었다. 나는 곧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킨 질문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닐 스미스 교수는 ICCG의 구성뿐 아니라 EARCAG의 구성에도 결정적 계기로서 최고의 실천적 역할을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비 교수가 추도사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자제할 수 없는 과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비판하지 못한 비판적 지리학자라는 모순에 빠졌지만(Wachsmuth, 2013에서 재인용. 또한 Cowen, Harvey et al., 2012 참조), 분명 그의 때 이른 죽음은 비판적 지리학계에 큰 손실이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나와 한국의 동료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며, 그의 역작 『불균등발전』을 공동으로 번역·출간했고, 《공간과 사회》의 추모 특집호(제25권 4호, 2015)를 편집하기도 했다. 나는 그의 비판지리학적 주장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학문적으로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비판지리학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¹¹⁾

그렇지만 바로 위에서 논의한 에피소드에 관한 한, 나는 모든 문화와 지식은 상이성과 공통성의 변증법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점은 민족성이나 문화뿐 아니라 비판적 지리학 지식도 그러하다. 위의 에피소드에서 언뜻 드러난 성향과는 달리, 닐 스미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를 다소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ICG를 위한 우리의 야심은 정치적으로 연결하고 조직하려는 우리의 시도에서 스케일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지구적인 것과 국지적인 것의 대안적 사회변증법을 표현하는 것이다”(Desbiens and Smith, 1999). 나는 비판적 지리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 국가와 민족들이 한편으로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지식을 간직하고 발전시키면서 자국이 당면한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한편, 다른 국가와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학문적 실천적 방안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이성과 공통성의 변증법을 현실에서 실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

11) 최근 국제적으로 비판적(급진적, 대안적 등) 지리학의 발전 과정에 관한 회고와 전망을 담은 저서들이 편집되고 있다(예로, Barnes and Sheppard, 2019; Berg et al., 2021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비판·대안지리학의 발달과정을 국가별 및 국제적으로 돌이켜보고 앞으로 발전 전망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다. 우리는 물리적 공간의 인접성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한 동시에 그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관계적 공간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물리적 공간은 인간 삶과 의식의 가능성을 조건 지운다. 우리는 지리학자이다. 이 지구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이에 관한 지식을 생산/재생산하면서 살아가는 인류는 모두 지리학자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공간은 결코 평평해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세계가 역동적으로 불평등을 지속하는 것처럼, 지구 공간도 끊임없이 요동치며 이곳저곳 사이의 불균등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 세계와 지구가 평평해지기를 추구하는 유토피아주의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을 거부하고 맞서 싸우면서 대안을 추구하는 비판·대안적 지리학자이다. 사회공간적 불평등이 결코 극복될 수 없는 인간 삶의 가능성의 조건이라면, 비판·대안적 지리학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최병두. 2000. 「한국의 비판-대안적 지리학의 역사: 고통의 긴 경험과 지식의 짧은 누적」. 《한국 공간환경》, 1권 2호, 1~16쪽.
- 堤研二. 1997. 「IICCG(第1回 国際クリティカル地理学会)の(多分に私的な)報告」. 空間と社会 ニューズレター.
- 崔炳斗. 1998. 「韓國における 批判的 オルタナティブ地理學の發展: 回顧と展望」. 水岡不二雄 譯. 日本地理學會 空間と社會研究クル-フ ニューズレター.
- Barnes, T. and Sheppard E.(eds). 2019. *Spatial Histories of Radical Geography: North America and Beyond*. NJ: Wiley.
- Berg, L. Best, U., Gilmartin, M., Larsen, H.G. 2021. *Placing Critical Geography: Historical Geographies of Critical Geograph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Choi, B.-D. 2000. "Long experience of suffering and short history of critical-alternative geography in Korea."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ritical Geography Conference, August 9~13, 2000. Vol.1, pp.241~252.
- Cowen, D., Harvey, D., Haraway, D., Rameau, M., Ramirez, B. et al. 2012. "Neil Smith: a critical geographer."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0, pp.947~962.
- Desbiens, C. and Smith, N. 1999. "Editorial: The International Critical Geography Group: forbidden optimism?"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7, pp.379~382.
- Mizuoka, F., Mizuuchi, T., Hisatake, T., and Tsutsumi, K. 2005. "The critical heritage of Japanese geography: its tortured trajectory for eight decad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3(3), pp.453~473.
- Tang, W.-S. 2016. "Report on the 8th East Asian Regional Conference in Alternative Geography." <https://hugeog.com/east-asian-regional-conference-in-alternative-geography/>
- Wachsmuth, D. 2013. "For the possibility of another world: Tributes to Neil Smith(1954-2012): Part Two the contradictions of Neil Smith." *City*, 17(2), pp.409~410.